대구銀, 행장 공백 길어질 듯… 회장·행장 겸임론도

이사회, 부행장 대행체제 유지 합의
전·현직 인사들 하마평에도 신중
행장공모 내부·외부 정해진 것 없어

대구은행이 당분간 은행장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후임 행장을 모색하면서 대구은행장의 공석이 길어질 전망이다. /대구은행

김경룡 행장 내정자의 자진사퇴로 수장 공백기를 맞은 대구은행이 당분간 은행장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후임 행장을 모색할 예정이다.

대구은행은 지난 5월 DGB금융 전·현직 임원을 대상으로 행장 공모를 진행해 김경룡 지주 부사장을 내정했으나 지난 2일 김 내정자가 지역 여론과 은행 안팎의 비판을 이기지 못하고 사퇴를 발표하면서 은행장의 공백기를 맞게 됐다.

이에 지난 4일 DGB금융지주 및 대구은행 이사회는 그룹임원인사위원회를 열고 은행장 경영권 승계 절차 등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이사회는 박명흠 부행장(마케팅 본부장)의 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합의했다.

업계에선 은행장 공백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사회가 대행 체제 유지 외에 차기 행장 인선 절차 등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고 있지 않아서다. 일부에선 다시 회장 겸 행장 체제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후임 대구은행장 임명을 두고 여러 전·현직 인사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지만 대구은행은 신중한 입장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대구은행장의 후보로 여러가지 인물들이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임추위 일정도 아직 잡히진 않은 상태에서 대행체제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도 예측할 수 없다. 은행장 공모도 내부인지, 외부인지 아직 가닥이 잡히지 않는 상태다"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대구은행은 그룹임원인사위원회에서 신규 임원 선임과 이사회 사무국 설치 등을 포함한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DGB금융그룹은 계열사 전 임원 17명 중 6명만 남기고 8명을 신규 선임하는 등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또한 조직개편에서도 ▲미래전략본부 ▲디지털·글로벌 본부 ▲시너지 추진본부 ▲지속가능경영본부 ▲리스크관리본부 등 5개본부로 재편했다. 특히 기업윤리센터와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진들이 참여하는 인재육성위원회 신설했다.

아울러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주 미래전략본부 ▲디지털·글로벌본부 ▲준법감시인 ▲DGB경영연구소 등의 임원은 공모를 통해 외부에서 영입된다. 비은행 자회사는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이른 시일 내에 새로운 공모 방식을 통해 임원 인사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인사단행은 김태오 DGB금융 회장의 인적쇄신안에 따른 것이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4일 "고객과 지역사회, 금융당국 기대에 부응하는 근본적인 인적 쇄신을 바탕으로 그룹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지역경제 부흥에 이바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인사 단행은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사활을 걸어왔던 DGB 금융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앞두고 지배구조 투명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업윤리센터 개설은 김 회장의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당초 DGB금융그룹은 금융감독원에 하이투자증권 자회사 편입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출했지만 1월 금감원으로부터 서류 보완 요청을 받은 후 심사는 중단됐다. 그 배경을 두고 일각에선 그룹의 지배구조 리스크가 크게 작용됐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DGB금융그룹은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앞두고 대구 수성구청 펀드 손실 보전 사건 등 금융 법령 위반 사항에 관한 당국의 행정조치 등 변수가 남아있어 인수작업에 귀추가 주목된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metroseoul.co.kr

"NH농협리츠운용, 새로운 수익원 될 것"

NH농협금융지주 출범식 개최

5일 서울 여의도 NH농협리츠운용 본사에서 NH농협금융지주 김광수 회장(왼쪽)과 NH농협리츠운용 서철수 대표가 출범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금융지주는 5일 서울 여의도 NH농협리츠운용 본사에서 김광수 회장을 비롯한 금융지주 계열사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한 가운데 NH농협리츠운용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농협리츠운용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자산관리회사(REITs AMC)로 농협금융의 100% 자회사이다.

이날 출범하는 농협리츠운용은 경제사업과 금융사업을 아우르는 범농협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을 선도하는 초우량 부동산 투자운용사를 목표로 한다.

농협리츠운용은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본인가를 받았으며, 농협금융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들에게 우수한 부동산 투자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자산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최고의 상품을 출시하고, 농협금융의 새로운 수익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 대표는 "계열사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안정적 수익기반을 다져 회사가 조기에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저금리인듯 저금리 아닌 '서민금융상품'

정부보증에도 금리 시중 두배
저축銀 "수익 역마진"억울

정부가 특례보증을 통해 서민금융상품 부실에 대한 책임을 덜어주는데도 저축은행이 저신용자 리스크를 이유로 금리를 과도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보증이 90% 이상인 서민금융상품의 경우 부실이 나더라도 저축은행 피해가 적지만 저신용자에 대한 과도한 리스크 부담을 금리에 더해 부과하고 있다는 것.

서민금융상품으로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이 있다. 그 중 정부가 특례보증을 제공한 상품은 햇살론과 바꿔드림론으로 햇살론은 정부보증비율이 90%, 바꿔드림론의 경우 정부 보증비율이 100% 달한다. 햇살론의 경우 상호금융회사나 상호저축은행이, 바꿔드림론의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 시중은행이 취급하고 있다.

5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보중대출 중 절반이상은 햇살론으로 금리는 연 4~6%인 가계담보대출의 두 배인 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4월 햇살론 대출실적은 1조1457억 원으로 2016년 대비 64% 증가했다. 지속적인 대출실적상승과 안정적 운용을 담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시중 보증상품의 두 배라는 분석이다.

〈햇살론 대출실적 추이〉 /자료=금융위원회

구분	17년					16년 1~4월	전년동기대비 증감	
	1월	2월	3월	4월	계		금액	비율
근로자	2,398	2,585	2,710	2,593	10,286	5,782	4,504	77.9%
사업자	257	266	349	309	1,181	1,205	24	2.0%
합계	2,655	2,851	3,059	2,902	11,467	6,987	4,480	64.1%

햇살론의 정부 보증비율은 90%이다. 예컨대 저신용자가 1000만원 대출금중 500만원을 연체해 부실로 판명날 경우 정부보증비율이 90%이기 때문에 저축은행의 손실은 50만원 안팎이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평균 조달금리 2%와 예금보험료 0.5%, 운영 인건비 1%, 모집법인 수수료 3~5%를 떼고 나면 수익이 1~2%이거나 역마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상품은 타 상품에 비해 금리가 저렴한 편이다"며 "햇살론은 마진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고 말했다.

중소서민금융관계자는 "금융기관의 경우 서민금융상품을 판매하더라도 일정의 운용비용이 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긴 어렵다"며 "7~9%의 햇살론 금리로도 해결할 수 없는 금융소외계층의 경우 공공성원리에 입각한 낮은 금리 서민금융기관을 마련하는 방법, 또는 정부의 복지정책을 통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우리은행-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생태계 지원' 업무협약 체결

(왼쪽부터)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손태승 우리은행장.

우리은행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3년 총 300억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 업무협약을 고용노동부와 체결하고, 사회적기업의 생태계 조성에 기여했다. 2017년에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권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협약에서 우리은행은 지원규모를 총 5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향후 5년간 여신, 모태펀드 출자, 제품구매 및 현물지원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식은 안재웅 사회적경제활성화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공동대표의 축사로 이어졌으며,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손태승 우리은행장의 화답 순으로 진행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오는 8월 고용노동부 모태펀드에 15억원을 간접투자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회적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핵심정책인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더 큰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여신금융협회, 리스영업 실무교육 실시

여신금융협회는 리스 영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중급) 리스 영업 실무교육'을 오는 11일과 12일에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분야별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이 물건별 리스 시장 현황 및 영업방식, 업무프로세스 등에 대한 체계적 지식과 함께 영업 실무 노하우를 전달할 예정이다.

11일에는 의료기기, 설비 ◇○리스 등 일반리스 영업과 관련해 국내 물건별 시장현황 및 시장참여자 동향, 관계 법령 및 현안 사항, 여신상품 및 거래구조, 거래처 발굴 및 접근방법과 사고사례 등에 대해 교육한다.

12일에는 자동차 리스 영업과 국내외 자동차 시장 규제 및 업계환경, 현안사항, 자동차 리스 계약 및 업무 방법, 일반리스, 메인터넌스리스, 장기렌탈 등에 대해 교육할 계획이다. 교육은 리스 영업 업무 3년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자별 부분 수강도 가능하다. 교육신청은 여신금융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서 6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

금감원

금융 가이드북 '태국어' 발간

금융감독원은 '외국인을 위한 금융생활 가이드 북' 태국어 편을 발간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5년 12월 중국어·베트남어 편, 2016년 7월 필리핀어·캄보디아 편, 2017년 8월 인도네시아어·영어 편을 개발한 데 이어 이번에 태국어 편을 추가로 발간했다.

가이드 북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꼭 필요한 5개 금융 주제와 외국인을 위한 생활정보 등 총 6개 주제로 구성됐다. ▲은행 이용하기 ▲환전과 해외 송금하기 ▲편리한 금융생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저축과 보험 ▲금융사기 예방 등이다.

/안상미 기자